

숙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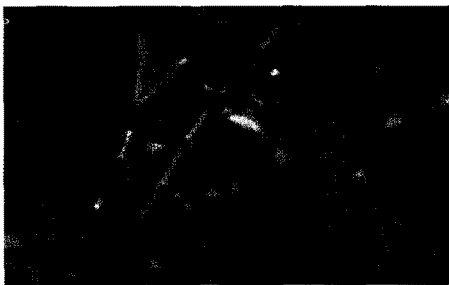
환경 숙_ 국립원에특작과학원 원에특작환경과

흰녹병



국화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백수병(白銹病)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는 잎 뒷면에 백색의 작은 사마귀 모양 돌기가 생기고 심할 경우 병반이 합쳐져 더덩이 모양의 큰 병반으로 된다. 초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며 비가 자주 오고 습기가 많은 날이 지속되면 여름철에도 발생이 심해진다. 하우스내에서는 습도를 낮추기 위해 환기에 주의해야 한다. 방제약제로는 트리플루미졸 수화제, 페나리몰 유제, 등이 있다. 발병초기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일약제의 연용은 피한다.

흰가루병



국화, 거베라, 안개초, 스타티스 등 대부분의 숙근류 화훼에서 발생하는 병이다. 잎에 흰색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피해를 나타내며, 심하게 감염된 잎은 말라죽는다. 시설재배시 여름 고온기를 제외하고 거의 연중 발생하나, 여름 장마철에는 발병이 쉬워 주의해야 한다. 식물체가 습해지지 않도록 하며 특히 야간의 다습을 피하고 낮에도 환기팬을 이용하여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등 시설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방제약제는 약제내성이 생기기 쉬우므로 단일약제의 연용을 피하고 교호로 살포한다.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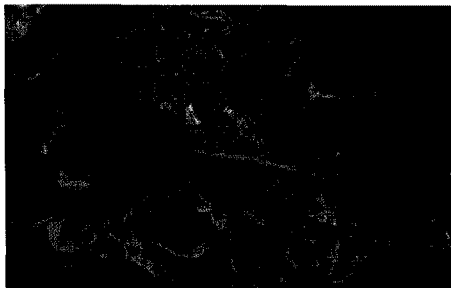
지제부 줄기나 뿌리가 갈색~흑갈색으로 변하고 포기의 바깥부터 감염되어 포기전체가 급격히 시들어 말라죽는다. 병든 식물에 형성된 병원균은 토양중에서 오래 생존하여 전염원으로 된다. 역병원균은 토양이 습하거나 고온시에 비가 많으면 감염된 토양에서부터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에 의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수생성 곰팡이병이다. 여름철 비가 오거나 침수될 때 급속히 퍼진다. 발생포장은 즉시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피해부위를 중심으로 전문약제를 관주처리 한다.

시들음병



주로 연작재배 포장에서 포기전체에 발생하며 특히 땅가 부위의 지제부에 발생한다. 카네이션이나 리시안서스 피해가 심한 병이다. 생육이 불량해지고 시들어 죽게 되며 썩은 줄기를 보면 연분홍색 병원균 덩어리가 형성된다. 묘종 구입 시 건전주를 구입하고, 자가 삼목 및 종자파종, 절화재배시 토양소독을 한다. 정식전 묘종의 뿌리에 상처가 없도록 주의하고 정식후 수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병된 포장은 다조메입제 등을 이용해 토양소독을 실시한다.

아메리카잎굴파리



유충이 잎에 구불구불한 구멍을 뚫어 가해하며, 성충은 잎에 붙어 즙을 빨아먹거나 산란하여 잎에 작은 반점을 남기는 피해를 준다. 피해부위가 갈색으로 변색되고 심하면 잎 전체가 시들어 말라 죽게 된다. 유충의 피해가 없는 건전한 묘의 선발이 중요하며, 한방사를 설치하여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황색점착 트랩을 이용하여 성충의 발생을 예찰할 수 있다. 방제약제로는 페니트로티온수화제, 아바멕틴유제, 등이 있으며 5일 간격으로 3회정도 나누어 살포하여야 한다. 번데기와 성충, 알에서 깨어나는 유충의 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뿌리썩이선충



국화의 연작재배지 뿐만 아니라 토양재배하는 숙근류에서 뿌리썩이선충은 고질적인 해충이다. 뿌리썩이선충은 토양내에서 서식하다가 뿌리내로 침입하여 뿌리를 썩게 만든다. 뿌리의 전개가 장애를 받게 되고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감소함으로써 지상부는 위축되고 퇴색되며 오래된 잎이 일찍 시들어 죽게 되며 전반적으로 생육이 위축된다. 일단 토양내에 뿌리썩이선충의 밀도가 높아져 재배기간 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방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식물을 심기 전에 반드시 토양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㉞